

총장칼럼

시스템이 결여된 도덕은 위험하다

서만철 | 공주대학교 총장

흔히 하는 말로 부와 명예를 같이 추구하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이 둘을 같이 추구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요즘은 언론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보통 한 왕조의 수명이 대략 250여 년인데 비하여 조선왕조가 5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농공상제도를 통하여 지배세력인 선비들이 도덕을 강조하면서 돈을 만지는 공업과 상업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들으면 서느끼는 바가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해이'로 통한다. 지식인들조차 그렇게 번역한다. 모럴 헤저드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숨겨진(hidden) 행위로 인해 다른 계약자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말한다. 가령, 보험 가입자가 의도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럴 헤저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위험'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제학 분야에서 모럴 헤저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애로우(Kenneth J. Arrow) 교수의 관점과 '도덕'의 바이블로 통하는 《도덕경》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애로우는 모럴을 '해이(relaxation)'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hazard)'한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리인(agent)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모럴 헤저드'를 사용했다.

그는 성선설에 기초한 '도덕'이 아니라 성악설이 강조하는 '시스템'에서 모럴 헤저드의 해법을 찾아냈다. 서양 사람인 애로우에게 있어서 '도덕'이란, 인간이 실천하기 힘든 수단으로 보였던 것이다. 즉 시스템이 배제된 상태에서 도덕만의 실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애로우의 눈에는 위험스럽게 비춰진 것이다.

또 노담은 자신의 책 《도덕경》에서 '도(道)'를 '만물의 근원에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노담 얘기의 핵심은 '도'보다는 '덕(德)'에 관한 탁견에 있다. 그는 "도를 체득함으로써 겸손, 유연, 양심, 질박, 무심, 무욕을 몸에 익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설파했다. '덕'에 관한 그의 얘기 또한 '도덕의 잣대는 위험한 논리'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동양인 노담에게 있어서도 무심, 무욕을 비롯한 도덕의 실천은 버거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선진 사회는 결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도덕의 준수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적 사고로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운용하면서, 단지 '도덕'은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스템인가? 일례로 은행에서 운용되고 있는 '순번 번호표 제도'가 시스템이다.

'순번 번호표 제도'의 도입으로 고객들은 일렬로 줄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와 함께 도덕적인 줄서기를 계도하던 청원경찰의 임무가 변화되었으며 업무처리

가 미숙한 직원 앞에 줄을 섰다가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뒤늦게 업무를 마쳐야 하는 불합리도 말끔하게 사라졌다. 그런데도 은행 점포내 질서는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시스템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결론적으로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파생되는 주인-대리인 간의 모럴 헤저드의 해법은 해이해진 도덕의식의 재무장이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가령, 택시회사 사장은 운전기사들의 모럴 헤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들의 도덕적인 애사심에 호소하지 않고 '일일 사납금제도'라는 시스템으로 대응한다.

모럴 헤저드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학사회가 기성회비를 횡령했다거나 빼돌렸다거나 의도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뒤돌아보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도덕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은 물론 '~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법과 제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설계해 나가는 시스템적 사고'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를 재설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탄탄한 도덕심위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모럴 헤저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설계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기대해 본다.

공주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Western Michigan Univ.에서 지질학 석사, Louisiana State Univ.에서 지질지구물리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공주대학교 기획연구처 기획연구팀장,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을 거쳐 현재 공주대학교 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